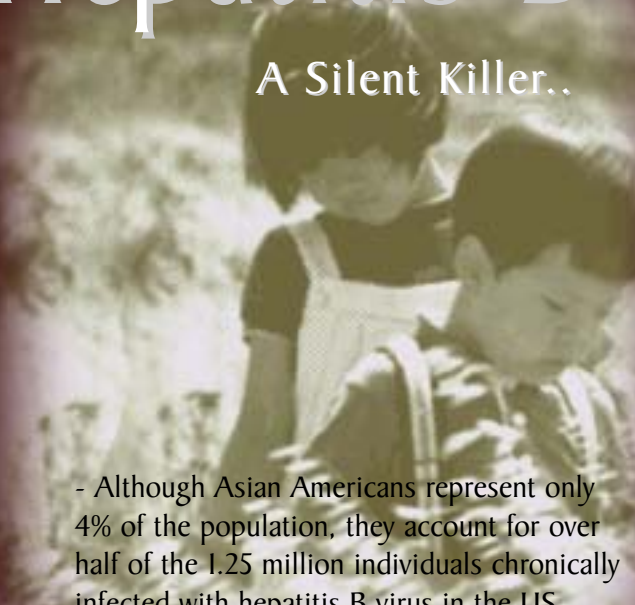


Protect Yourself From..

Hepatitis B

A Silent Killer..



- Although Asian Americans represent only 4% of the population, they account for over half of the 1.25 million individuals chronically infected with hepatitis B virus in the US.

- Korean Americans are up to eight times higher at risk for developing liver cancer from the hepatitis B virus compared to Caucasian Americans.

The Hepatitis B Initiative



www.hepbinitiative.org

**Written and designed by members of the Chris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and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congregation of
Vienna, Virginia**

**Review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Taskforce on Hepatitis B:
Focus on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This program is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the Association of Asian Pacific Community
Health Organizations (AAPCHO) and the Asian and Pacific Islander Health Forum (APIHF).
Funding for this program is provided through Cooperative Agreement US2MP 0004-05-4 from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Minority Health.**

Designed by Scott Kwak

What is Hepatitis B?

Hepatitis B is a serious disease caused by a virus that attacks the liver. It can cause liver damage, liver cancer, and ultimately death. Many people who get hepatitis B do not feel sick and may not know they have it.

How Do You Get Hepatitis B?

Most Korean Americans get hepatitis B from family members or friends that are chronically infected with the hepatitis B virus. The virus is passed from mother to child during birth or through close personal contact with the blood of infected individuals, such as contact between open wounds, sharing toothbrushes or razors, and having unprotected sex. Sneezing, coughing, sharing dishes, holding hands, or breast milk does not spread hepatitis B.

Why is Hepatitis B Dangerous?

Hepatitis B is often not diagnosed because it is a silent disease. People who have hepatitis B are chronically infected with the hepatitis B virus. The virus remains in the person's blood but does not cause them to be sick. They can have normal blood tests for liver function.

Early detection is important for those that are chronically infected. Some develop cancer as early as age 30. Most Korean Americans find out too late for treatment to be effective. That is why screening for hepatitis B is so critical.

Q: Can a person have hepatitis B and not know it?

A: Yes. Many people who have hepatitis B do not feel sick.

What's the Good News?

There is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which protects you from hepatitis B for life. It is the first anti-cancer vaccine developed. The vaccine is given in the form of three shots over a period of six months. The vaccine is only effective if you have not been exposed to hepatitis B. All babies born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91 should have received the vaccine.



What Should You Do?

Get Screened - To find out whether you have hepatitis B. Ask your doctor for the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g) test and hepatitis B surface antibody (HBsAb) test, which is not included in standard blood tests taken at routine physical examinations.

Get Vaccinated - If your blood test shows that you need the vaccine, get vaccinated through your doctor, school nurses, health clinic or church. The vaccine will protect you from hepatitis B for life.

Get Treatment - If your blood test is positive for hepatitis B, you are probably chronically infected with the hepatitis B virus. It is recommended that you be screened for ALT every six months, receive an ultrasound once a year, and get vaccinated for hepatitis A.

Is There a Cure?

Although currently there is no cure for hepatitis B, there is effective treatment available. Individuals chronically infected with the hepatitis B virus need to be screened for ALT every six months and have an annual ultrasound examination of the liver.

Early treatment of the hepatitis B infection can reduce the risk of further liver damage. If blood levels of serum transaminase (ALT or SGPT) are elevated, there are oral medications available that can effectively suppress the virus.

Q: Is it safe to share eating utensils with someone who has hepatitis B?

A: Yes. Hepatitis B is transmitted through the blood or sexual fluids of an infected person.

Q: Will getting the hepatitis B vaccine cure me from

A: No, the vaccine is not a cure. It only protects you with the hepatitis B virus if you have not been expos


Hepat

HBV

‘HBV’는 급성 및 만성 형태로 발병하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소리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B형간염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십시오

- 
-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미국내 B형 간염 환자 총 백 25만 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B형 간염에서 암으로 발전될 확률은 한국계 미국인의 경우 백인계 미국인들에 비해 8배나 높습니다.

The Hepatitis B Initiative



www.hepbinitiative.org

본 설명서는 버지니아 베앤나에 소재한 그리스도 중앙 장로 교회(Christ Central Presbyterian Church)와 와싱턴 중앙 장로 교회(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의 성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면 8월 간염 대책위와 아.테 지구 분과 위원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테계 미국인 건강포럼 사업의 일환으로서 보건 복지부 소속 소수연속 분과위원회의 US2MP 0004-05-4 글 등란 보조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디자인: 박 기준

B형 간염이란 무엇입니까?

B형 간염은 간을 해치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으로서 간 손상, 간암,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위협해지는 병입니다. B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증상을 못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냅니다.

B형 간염은 어떠한 경로로 걸리게 됩니까?

한국계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인 친지, 성관계 가족들에 의해 감염됩니다. 출생시 어머니로부터 감염되거나, 피부의 상처, 면도기나 칫솔을 같이 사용하는 등, 감염된 사람의 피에 접촉될 때 감염됩니다. 재채기, 기침, 식기, 손잡기, 모유 등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B형 간염은 왜 위험합니까?

B형 간염은 증상이 별로 없는 병이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B형 간염 환자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이러스가 환자의 피속에 잠복해 있으나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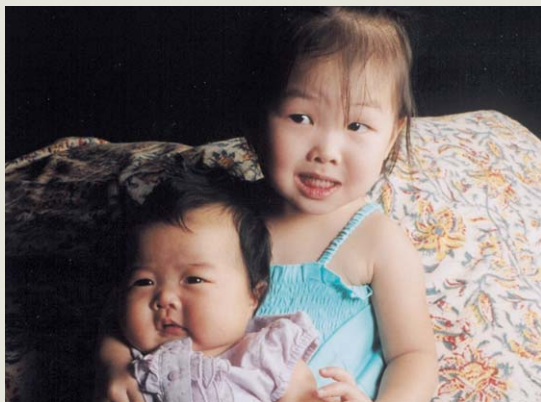
B형 간염 보균자들에게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30 대에 이미 간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형 간염 검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 본인이 B형 간염에 걸린 것을 모르는 수도 있습니까?

답: 네. 대부분의 B형 간염 환자들은 병에 걸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일생 동안 B형 간염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주사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 백신은 암예방백신으로는 최초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6개월 동안 세번에 걸쳐 주사로 맞게 됩니다. 백신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을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1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들을 백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검사: B형 간염 검사를 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정기 검진시 실시하는 일반 피 검사에는 이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에게 B형 간염 항원검사(HBsAg)와 B형 간염 항체검사(HBsAb)를 부탁해야 합니다.

접종: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의사, 학교 간호사, 보건소 혹은 교회를 통해 백신을 맞으십시오. 백신을 맞으면 평생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치료: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B형 간염 보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 6개월 마다 간 효소(ALT)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년에 한 차례 초음파 검사를 받고, A형 간염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완전 치유가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B형 간염을 완전 치유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매 6개월마다 간 효소(ALT)검사와 일 년마다 초음파 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형 간염을 초기에 치료하면 더 이상 간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효소(ALT) 수치가 높은 경우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복용 약이 있습니다.

문: B형 간염 보균자와 수저를 같이 써도 안전합니까?

답: 안전합니다. B형 간염은 보균자의 피나 정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입니다.

문: B형 간염 백신을 맞으면 간염이 치료됩니까?

답: 아닙니다. 백신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아직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B형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